



石油時評

今年的 國際石油情勢

- 原油價引上은 樂觀을 不許
- 大幅的인 供給不足우려는 없어

當面의 국제석유정세는 이란-이라크戰에 따른 原油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란-이라크戰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양국의 석유수출이 이대로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예측을 不許하는 상황이다.

우선, 금년의 석유수요전망만 하더라도 原油價格의 高騰과 세계경기의 침체로 올해에도 또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自由世界의 석유수요는 79년의 하루 5천 2백 20만 배럴에서 80년에는 4천 9백 40만 배럴로 약 5%가 감소했다. 81년에도 世界景氣의 침체와 省에너지의 進展으로 석유수요는 다시 1~2%가 감소하여 하루 4천 8백만~4천 8백 5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석유공급은 이란, 이라크의 수출량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減産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OPEC (石油輸出國機構)의 석유생산은 79년의 하루 3천 1백 30만 배럴에서 80년에는 이란, 이라크의 수출감소로 2천 6백 80만 배럴로 크게 줄어 들었다. 현재 이란, 이라크의 생산량은 이란이 하루 1백 50만 배럴, 이라크가 1백 20만 배럴로 兩國 합해서 하루 2백 70만 배럴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국의 생산량은 앞으로 순조롭게 회복 될 경우 금년 4/4 분기에는 합계로 하루 3백 50만 배럴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올해 평균 생산량은 양국을 합해 하루 2백 80만 배럴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생산량인데 사우디의 減産時期와 幅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마니 石油相은 지난 3월 18일 리야드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4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내지 60만 배럴씩 減産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가까운 장래에 이란, 이라크의 수출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하루 50만 배럴의 증산을 하든가, 늦으면 7월 이후 어느 시기에 하루 8백50만 배럴의 생산규모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OPEC의 생산량은 작년의 하루 2천 6백80만 배럴보다 더욱 떨어져 2천 5백2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것 같다.

한편 非OPEC의 석유공급량은 멕시코 北海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共產圈의 수출을 포함하면 하루 2천 3백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평균 석유공급량은 하루 4천 8백20만 배럴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의 석유수요를 하루 4천 8백만 배럴 내지 4천 8백60만 배럴로 볼 때, 올해의 石油需給은 플러스 20만 배럴 내지 마이너스 4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수급에 있어서 다소 공급 부족이 있다 해도 세계의 석유수요감퇴와 높은 비축수준을 감안할 때, 올해에 대폭적인 공급부족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란-이라크紛争과 사우디의 減産 등 원유공급면의 불안요소와 안정적인 原油供給源의 確保難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原油情勢의 基調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올해 原油價格의 전망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석유수급의 완화와 現物市場 원유가격의 하락을 배경으로 하여 야마니 石油相이나 오타이바 石油相은 오는 5월 25일에 열릴 OPEC 총회에서 原油가격인상에 반대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카타르의 알·사니 石油相은 油價인상폭은 小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油價인상 역시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의 석유수급이 앞으로도 계속 순조롭게 진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5월의 OPEC총회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외의 가격인상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여름철의 수급완화에 따른 스파트價格의 하락을 배경으로 統一價格에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 현재 배럴당 32달러로 묶어 두고 있는 아라비안 라이트 原油를 2달러 정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OPEC의 강경파가 통일가격의 실현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에는 현재의 실질 원유가격 수준인 36달러로 인상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격인상폭은 OPEC총회 때의 석유수급이나 스파트 원유가격의 동향과 레이건정부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공급이나 中東정책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12月)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다시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국으로서 유류소비 절약등의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